

아라



언니 오늘 친구가 진짜 신났더라

주가가 작년 마이너스였는데 올해는 막 폭등이라고

친구 부모님도 새로 증권 계좌 만드신대 ㅋㅋ

주아



오 그게 사실 좀 신호이긴 해

오후 8:30

아라



신호? 무슨 신호?

주아



박종훈 강사님이 Q&A 영상에서 짚으셨는데

강세장에는 4단계가 있대

비관 → 회의 → 낙관 → 유포리아 (행복감)

처음엔 다들 비관할 때 시작해서

마지막 유포리아에서 죽는다고

아라



오 그럼 지금은 어디?



주아

지금은 적어도 3단계 낙관 구간

신규 증권 계좌 급증 = 새 매수 주체 늘어남

그게 정확히 낙관 단계 신호래

아라



헐 그럼 곧 4단계 가서 폭락?



주아

그게 보통 강세장 흐름이긴 해

근데 이번엔 더 복잡함

아라



왜?

오후 8:33



주아

이번 상승은 의도적 과열이거든

코로나 시국이랑은 달라

코로나는 외생 변수 = 누가 미리 알 수 없어

근데 이번엔 정치적으로 의도 있음

아라



정치적 의도?



주아

트럼프가 11월 중간선거 절대 져선 안 되거든

지면 나머지 2년 레임덕

그래서 무조건 돈 풀고 자산 가격 띄움

아라



ㅋㅋㅋ 회사 부장님 인사고과 시즌 직전이랑 비슷한 결



주아

ㅋㅋㅋㅋㅋ 정확함

결론은 트럼프가 자발적으로 긴축할 가능성 = 제로

계속 의도적 과열이 이어질 거란 뜻

아라



그럼 진짜 어떻게 폭락 미리 알아?



주아

강사님이 4가지 신호를 분석하셨거든

인플레이션 / 노동시장 / 달러 가치 / 금리

결론부터 — 앞 세 개는 다 마비됨

금리만 살아있는 유일한 신호래

아라



어 왜 마비됐어?



주아

하나씩 보자

첫째 인플레이션

원래는 진짜 강력한 신호였음

물가 3% 넘어가면 미국에서 절대 돈 못 풀던 시절

근데 트럼프가 연준 압박해 봤으니까

3% 넘어도 그냥 돈 풀라고 함

사실상 트럼프가 눈·귀를 가린 셈

아라



헐 그럼 5%까지 가야 신호?



주아

그런데 5%까지 가려면 유가·천연가스가 천정부지로 올라야 됨

그게 당장 일어날 가능성은 굉장히 낮음

그래서 일단 인플레는 막혀 있는 상태

아라



둘째 노동시장은?



주아

이거 강사님이 진짜 단호하셨거든

삼의 법칙(Sahm Rule)은 노이즈에 불과하다

기사에서 삼의 법칙 나오면 그냥 접으라 하심 ㅋㅋ

아라



왜? 그게 뭔데



주아

실업률이 직전 12개월 최저 대비 +0.5%p 오르면 침체  
신호로 보는 지표

근데 노동시장 자체가 후행 변수임

친구가 헤어진 다음 날 데이트 약속 잡는 거랑 비슷

이미 끝난 일을 사후 설명하는 정도

아라



ㅋㅋㅋㅋ 비유 미쳤다



주아

아라

ㅋㅋㅋㅋ 비유 미쳤다

그래서 미래 예측엔 쓸모없음

근데 진짜 학계도 똑같은 결론 냈음

2024년 paper에서 — 침체 시작 후 4개월 지나야 유용한 신호

1950년 이래 4번이나 false positive 났고

Richmond Fed가 2025-07에 신규 지표 SOS 발표함

아라



헐 그럼 진짜 강사님 진단 맞은 거네



주아

○○ 셋째 달러 가치는 더 단순함

한국은 원화 떨어지면 주가 폭락이지만

미국은 패권국이라 달러 떨어져도 트럼프는 환영

수출 잘되니까. 신호 X

아라



그래서 금리만 남은 거구나



주아

맞아 — 트럼프가 다른 건 다 압박해도

금리만은 절대 무시 못 함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3 배

2010년대 평균 1.5% → 2026년 1월 4.2% — 2016 발행 채권 만기 차환에 4.2% 적용 → 미국 이자 부담 폭증 → 트럼프도 절대 무시 못 하는 유일한 신호

아라



와 진짜로 3배네

이게 왜 그렇게 부담스러워?



주아

미국이 자금 조달할 때 10년물 국채로 함

2016년에 발행한 1.5%짜리가 이제 2026 만기 됨

근데 미국은 적자라 한 푼도 못 갚음

그래서 만기 도래분을 4.2%짜리로 다시 발행

아라



헐 그럼 이자 부담 지니 늘어남



주아

○○ 라떼가 7천원이었는데 19,000원 된 셈

트럼프도 이걸 진짜 절대 무시 못 함

아라



근데 베센트가 단기채로 누른다며?



주아

어 잘 들었네 ㅋㅋ

베센트 재무부 장관이 일부러 장기채는 별로 안 찍고

단기채 위주로 발행해서 장기채 금리를 인위적으로 누름

근데 그래도 오르면? 그게 위험 신호래

아라



오 누른 데도 올라가는 거?



주아

정확해

❤️ 1

그리고 강의 후 4개월 흐름이 정확히 그 그림

5월 8일에 4.38% / 5월 12-13일 4.42%까지 도달

4.5% 노란불 경계 접근 중

아라



엄청나네



주아

이 부분은 박종훈 강사님이 part 2-1강에서 본격 다루신대

신호등 룰북이라는 게 있대

아라



그럼 한국은 뭘 봐야 해?

오후 8:48



주아

한국은 금리가 아니라 환율

원화 환율이 가장 결정적

1,500원이 1차 경계 경보

1,550원이 압박 본격 시작

1,600원까지 가면 완전 비상 신호

아라



와 친구 미국 여행 환전한대

그게 이미 1,470원대라 했어



주아

맞아 진짜 1,500원 1차 경계 가까워지는 중

왜 환율이 한국에서 결정적이냐면

한국은 패권국 아니라서 환율 오르면 더 이상 돈 못 뿌림

아라 

ㅇ 25년 한국 주가는 진짜 폭등이었잖아?

주아 

어 그 비결도 강사님이 풀어주심

첫째 24년이 마이너스라 기저효과

둘째 재정 + 한은 통화로 막대한 돈 풀음

셋째 국민연금이 한국 주식 비중 16~17% 초과 매수 중

원래 룰은 15%인데 그걸 넘김

아라 

가족 비상금까지 펀드 사는 느낌

주아 

ㅋㅋㅋ 그런 걸

근데 환율이 1,500/1,550/1,600 단계 진행하면

더 이상 돈 풀 수가 없음 → 주가 압박

아라 

와 진짜 환율 잘 봐야겠다



주아

그럼 둘째 질문 그린란드

트럼프가 무력 침공 안 한다고 했잖아

근데 그게 끝난 거 아님

아라



엥 끝난 거 아냐?



주아

강사님이 살라미 전법이라 부르심

얇게 썰어 조금씩 전진

1단계 자원 독점·우선 접근권 (지금)

2단계 군사 기지 강화

3단계 토지 매입 야금야금 늘려감

아라



오 점점 먹는 거



주아

○○ 홍콩이 99년 뒤에 결국 중국 반환됐듯이

강대국이 시간 들여 야금야금 먹는 패턴

이미 트럼프가 절반의 승리 거둬

나토·덴마크·그린란드 다 협상장 진입했거든

그린란드는 협상 대상 자체가 돼선 안 되는데 그렇게 됨 = 미국 승리

아라



ㅎㅎ 협상장 들어간 순간 진 거네



주아

그리고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골든돔 구상에 넣음

골든돔이 뭔지 알아?

아라



아니 잘 모름



주아

미국 영토 방어 시스템임

근데 거기에 그린란드 포함시킨 거 = 영토 야욕 명시

남의 나라를 자기 방어 시스템에 넣겠다는 자체가 의도 노출

아라



근데 트럼프가 왜 그린란드를 그렇게 원해?

오후 9:00

주아



1순위가 희토류임

휴대폰·배터리·풍력 발전기 핵심 비밀 재료

특히 네오디뮴이라는 게 영구자석 핵심

매장량 보면 중국 4,400만톤 / 미국 190만톤 / 그린란드 공식 150만톤

아라



엥 그럼 그린란드 별로네?

주아



공식만 봐선 그래

근데 그린란드는 80%가 동토 미탐사 지역

추정 매장량이 3,600만 톤

특히 네오디뮴이 미국 땅엔 별로 없어

아라



와 그래서 트럼프가 미친 듯이 추진하는 거구나

주아



○○ 그리고 진짜 신기한 게 사우디가 끼어들었음

아라



사우디? 왜?

주아



희토류는 켈 때보다 정제할 때 방사성 물질 대량 발생

그린란드 사람들이 자기 땅 정제는 절대 반대

그래서 사우디가 자기 무인지대를 정제 시설로 내주겠다 함

아라



오 한솔이네 + 지수네 + 민호네 도시락 세어 같은 그림

주아



ㅋㅋㅋㅋ 정확함

미국 기업 Critical Metals가 일정표 진짜 빨라

1/7 그린란드 현지 시범 공장 계획

1/15 사우디 15억 달러 정제 시설 합의

1/22 그린란드 시범 공장 비즈니스 콜

날짜가 따박따박 — 미국 정부랑 모종의 딜 의심

아라



오 진짜 빠르네



주아

근데 강의 후 4개월 만에 더 본격화됐어

5월에 Critical Metals가 Tanbreez 70% 인수 완료

Tanbreez는 디스프로슘·터븀·네오디뮴 매장량 세계 최대

그리고 사우디 50-50 JV도 정식 발표함

아라



와 4개월 만에 진척이 ㄷㄷ



주아

근데 한국이 진짜 중요한 위치임

아라



한국? 우리가 왜?



주아

정제된 희토류를 미국이 직접 쓸까?

아니야 — 대부분 한국 제조업에서 사용

한국이 완제품 만들어서 미국에 공급하는 구조

아라



헐 그럼 우리도 깊숙이 들어가 있네



주아

○○ 강사님이 짚은 들여다볼 영역 3개

북극 항로 / 한국 정제 진입 / 밸류 체인 들어가기

골든돔 가면 북극해 시대 핵심축 = 그린란드 - 유럽 - 한국

아라



와 진짜 시대 흐름이 그렇게 가는 거구나

오후 9:05



주아

마지막 셋째 질문 — 덴마크 미 국채 매도

아라



오 그것도 들었어 — 덴마크가 전량 매각?



주아

○○ 근데 결론부터 — 진짜 1도 안 되는 양

1억 달러 = 1,460억 원 정도

미국 전체 국채 시장은 31조 달러

비율 0.003%

아라



ㅋㅋㅋㅋ 거의 없는 수준



주아

강사님 비유 — 바다에 떨어진 잉크 한 방울

욕조에 양조간장 1방울 떨어뜨려도 별 거 없는 수준

아라



ㅋㅋㅋㅋㅋ 비유 리오



주아

근데 완전 무시할 수 없는 이유가 있음

 1

아라



왜?



주아

지금까지는 중·러·인·브 같은 적대국만 미 국채 팔고 금 샀어

근데 이제 동맹국도 미 국채 무기화할 수 있다는 신호

그래서 그린란드 무력 침공 안 한다 발표 후에도 금값이 안 떨어짐

아라



오 진짜 그 가능성 자체가 의미 있는 거구나



주아

그리고 4개월 만에 흐름이 본격화됐어

스웨덴 Alecta라는 펀드가 누적 \$7.7~8.8B 매각함

Moody's가 2025-05 미국 신용등급을 Aaa→Aa1로 강등

재정 우려 + 트럼프 무역 정책 불확실성 명시

아라



헐 학교 성적표 1등 → 2등 떨어진 수준



주아

ㅋㅋㅋㅋ 정확함

베센트는 다보스에서 'Denmark is irrelevant'라며 무시했지만

결국 강사님 진단이 시간 갈수록 검증되고 있음

강의가 짚은 예의주시 신호 4가지

01 미국 시장

—  
10년물 4.2% → 4.5% 노란불 흐름  
(베센트 인위 억제에도 상승)

02 한국 시장

—  
환율 1,500원 1차 경계  
(1,550/1,600 단계 진행 모니터링)

03 그린란드

—  
희토류 밸류 체인 진척  
(Critical Metals + 사우디 JV 시간표)

04 동맹국

—  
미 국채 매각 누적 흐름  
(스웨덴 Alecta·Moody's 강등)

아라



오 4가지 신호 한 번에 정리됐다

오후 9:10

주아



결국 강의 결은 분석·관찰 톤이야

강의에서 '매수·매도 권유 X'라고 명시하셨고

강의에서 즉각 매수·매도 권유는 없으셨음

그냥 "미국에선 금리, 한국에선 환율을 보자"

아라



오 깔끔하네

주아



그리고 한 줄로 — 의도적 과열장에서 살아있는 신호는 단 하나, 금리

다음 강 Part 2-1강 "돈 가격을 알아야 돈 번다"

베센트 단기채 정책 + 신호등 룰북 본격 다루신대

아라



오 기대된다 ㅋㅋ

주아



다음 강 올라오면 또 풀어줄게 

본 콘텐츠는 강의 정리 목적이며 특정 자산의 매수·매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외부 자료(+1~+4)는 강의 시점 이후의 정량 변화와 사례 후속을 보장합니다. 모든 투자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